현장시선

고 영 림
(사)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장·언어학박사

무엇이 제주를 살릴것인가

탐라문화광장. 제주시 원도심에서 매번 거쳐 가는 이곳을 볼 때마다 왜 만들었을까 생각하곤 한다. 제주도정이 성급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드나드는 사람이 없는 이 공간이 생길 턱이 없었을 것이다. 제주 근현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던 건축물들이 파괴돼 버렸기에 이야기를 복원하는 노력을 해도 역부족이다. 사람들은 가끔 벌어지는 행사 때나 모일뿐이다. 생각이 짧았던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매우 좋은 사례가 됐다.

제주신항개발사업. 이 사업의 공청회와 사업설명회에 도민으로서 참여해 왔다. 황당한 상황을 여러 차례 목격해 왔기에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물음표를 지울 수 없는 사업이다. 제주도정이 내건 거창한 목표 중 하나는 크루즈 관광 수요 해소로 설정돼 있다. 크루즈 관광객들의 숫자가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정작 숙박을 크루즈 내부에서 해결하는 그들이 제주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제주 제2공항사업. 지난 10년 동안 제주도민의 갈등과 혼란의 중심에 있는 이 뜨거운 감자는 언제쯤 식을지 답답할 뿐이다. 제주에 굳이 두 번째 공항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 역시 더 많은 관광객 수용을 이유로 내세운 사업으로 등장한 지 오래됐다.

이 3개 사업의 공통점은 토목 개발이다. 원도심이건 신항이건 공항이건 관광객 숫자 늘리기를 목표로 했고 자연과 인문 생태계를 파괴하는 토목 개발로 귀결된다. 관광객 숫자에 매달리다 보면 전 세계적 문제로 등장한 과잉 관광(오버투어리즘)의 문제를 제주가 앓지 말란 법이 없다. 지속가능한 관광 산업, 고부가 가치 관광 산업 구조로 변신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거창하고 육중한 토목 개발 사업의 결과물만이 관광객을 불러오는 게 아니다. 토목 개발은 다양하다. 죽어가는 대상을 살리거나 이미 죽은 것을 복원하기도 하고 새롭게 만드는 문화예술 토목 개발도 있다.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함부르크의 엘브필하모니, 최근 개관한 부산콘서트홀의 공통점은 도시의 랜드마크이자 자부심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다. 아름다운 토목 개발의 결과물은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제주도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의 선진 사례들을 그렇게 많이 보고 왔어도 이런 선진국형 토목 개발을 추진한 사례를 본 적이 없다.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는 충분한 시간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하향식 추진 방식은 바뀌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공부하라. 모르면 제대로 알고 나서 일하라.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지속가능한 제주를 물려주려면, 어리석은 일들을 그만 벌여야 한다. 현재의 토목 개발 정책들을 재고해야 한다. 무엇이 제주를 살릴 것인가. 지혜가 제주를 살릴 것이다.

사설

제주도 하반기 정기인사, 다시 출발선에…

제주특별자치도의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가 그제 단행됐다. 11일 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민선8기 도정 핵심 정책의 성공적 완성과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는 게 명분이다. 직급 승진자들을 포함해 전보와 신규 발령 등 795명 규모다. 승진자만도 200명에 육박하는 역대급이다. 실·국장급들의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과 직제 신설 등이 맞물리며 추가 승진 여력이 생겼다.

인사권자인 오영훈 지사의 입장에선 기대하지 않았던 승진요인으로 인해 인사적체가 해소됨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내년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은 피력하지 않았지만 재선 고지를 향한 의지를 갖고 있는만큼 무관하다곤 할 수 없다. 이번 인사를 통해 도정 핵심 과제의 성과를 거두면서 도약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년이 채 남지 않은 기간 일로써 승부를 걸고, 심판을 받겠다는 사전 포석인 셈이다. 향후 뒷받침이 과제다.

이러쿵저러쿵 인사에 대한 평가는 여운이 없이 짧게 끝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선거를 떠나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공직의 역할이 막중하다. 공직자들의 활약에 따라 제주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민선 8기를 성공적으로 매듭짓고, 더 발전적인 9기를 준비하기 위해선 분골쇄신해야 한다. 그 출발점을 이번 정기인사에서 찾아야 한다.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인사가 만사'라는 것을 복기해 본다. 도정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녹록지않은 현실을 직시하며 난관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

불법주정차 만연…사고 야기 경각심 절실

불법 주정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차 또는 정차가 금지된 장소에서 차량을 정지시키는 행위다. 소화전,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이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런데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서 위반행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도내 불법 주정차 사례는 총 5699건이다. 이중 6대 불법 주정차 구역 항목별로는 횡단보도가 143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인도 1025건, 교차로 모퉁이 813건, 소화전 401건, 버스정류소 99건, 어린이보호구역 53건이다. 횡단보도와 인도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또 교차로 모퉁이의 주정차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자칫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교통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전면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일반도로보다 3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가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746건에 이르고 있다.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는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한 행위가 타인에게는 불편을 주고 심지어는 교통사고를 야기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픽 뉴스

미국의 품목별 관세 부과 현황

7월 9일(현지시간) 기준

자동차	25%	4월 3일(현지시간) 발효
자동차 부품	25%	5월 3일 발효
철강	50%	3월 12일 25% 관세 발효, 6월 4일 50%로 인상
알루미늄	50%	
구리	50%	8월 1일 발효 예정
반도체	발표 예정	
의약품	발표 예정	

연합뉴스 자료: 미국 상무부

열린마당

보이지 않는 손길에 따뜻한 빛을

김 유 미
제주도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돌봄은 고되고 때로는 외로운 일이다. 병원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보호자와, 손발이 돼주는 간병인의 삶은 종종 잊히기 쉽다.

제주에도 이름 없이 병실 곳곳을 누비며 환자를 돌보는 수많은 간병인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의 수고는 오랫동안 사회적·제도적 인정 없이 그림자처럼 존재해 왔다.

이에 제주도는 2024년 7월, 전국 최초로 '간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며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선언을 내놓았다.

조례 시행에 발맞춰 제주도는 간병인과 보호자의 전문성과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2025년도 간병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낙상예방, 감염관리, 스트레칭 실습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심리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 "당신의 노고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도 돌봄이 필요합니다"라는 사회의 진심 어린 응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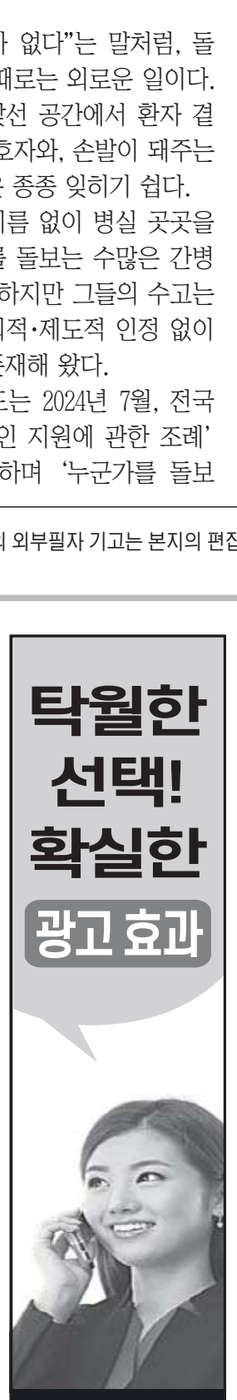
우리 모두 언젠가 돌봄을 주고받는 존재가 된다. 간병인을 향한 존중은 곧 우리 모두를 향한 존중이다. 그들이 더욱 따뜻하고 전문적인 손길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일은 결국 우리의 삶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 한 욱 편집국장 고 대 로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hl@ihalla.com
광고접수 본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매 매
최고수익 원룸빌딩
대 지 1,055㎡ 건 물 1,044㎡
월수익 1,200만원X12개월 =1억4400만원(년)
위 치 해안도로변 가 격 19억
010-3695-5580
필립공인중개사 양성언

● 깨끗한 환경 건강한 생활 ●
제주, 입주청소
하수구뻥, 변기교체 제초작업/벌초대행
010-4025-6424
- 입주, 이사, 거주, 부분청소 -
아파트, 빌라, 연립, 펜션, 개인주택, 식당, 상가, 학원, 사무실, 공연장 등등
줄눈시공/방충망교체/생활폐기물처리
싱크대수전교체/곰팡이제거
주거환경을 깨끗하고 산뜻하게 입주 첫 날의 그 깨끗함, 그대로를 재현합니다.
제주크린 등록번호:616-16-81361 세금계산서 발행, 카드결제 가능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허가번호 18-제주2022-20-03
감귤묘목
유라조생 ..... 2~3년생
천 혜 향 ..... 3~5년생
황 금 향 ..... 3~5년생
한라봉엠 ..... 3~6년생
남 진 해 ..... 3~4년생
성전온주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탐 라 봉 3년생
윈터프린스 3년생
감 평 3년생
진 지 향 3년생
탱 자 묘 1년생
한림종묘사
010-8820-5769
종자관리사 010-3690-2453

감귤묘목·포트묘목 분양
※ 감귤보급품종(1~3년생)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궁천
● 유라조생
● 오하라베니와세
● 금귤 ● 하귤(아마나스) 外 다수품종보유
※ 국내육성품종(1~3년생)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 윈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니향 ● 탐나는봉
● 미니몬 ● 제라몬

※ 포트묘목 생존률이 높고 심는 시기 조절가능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드향 / 황금향 / 천혜향 / 한라봉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하귤 / 오하라베니 / 레몬 外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1831-2번지 外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토박이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 주 개 발
☎ 782-3644
010-4690-3636